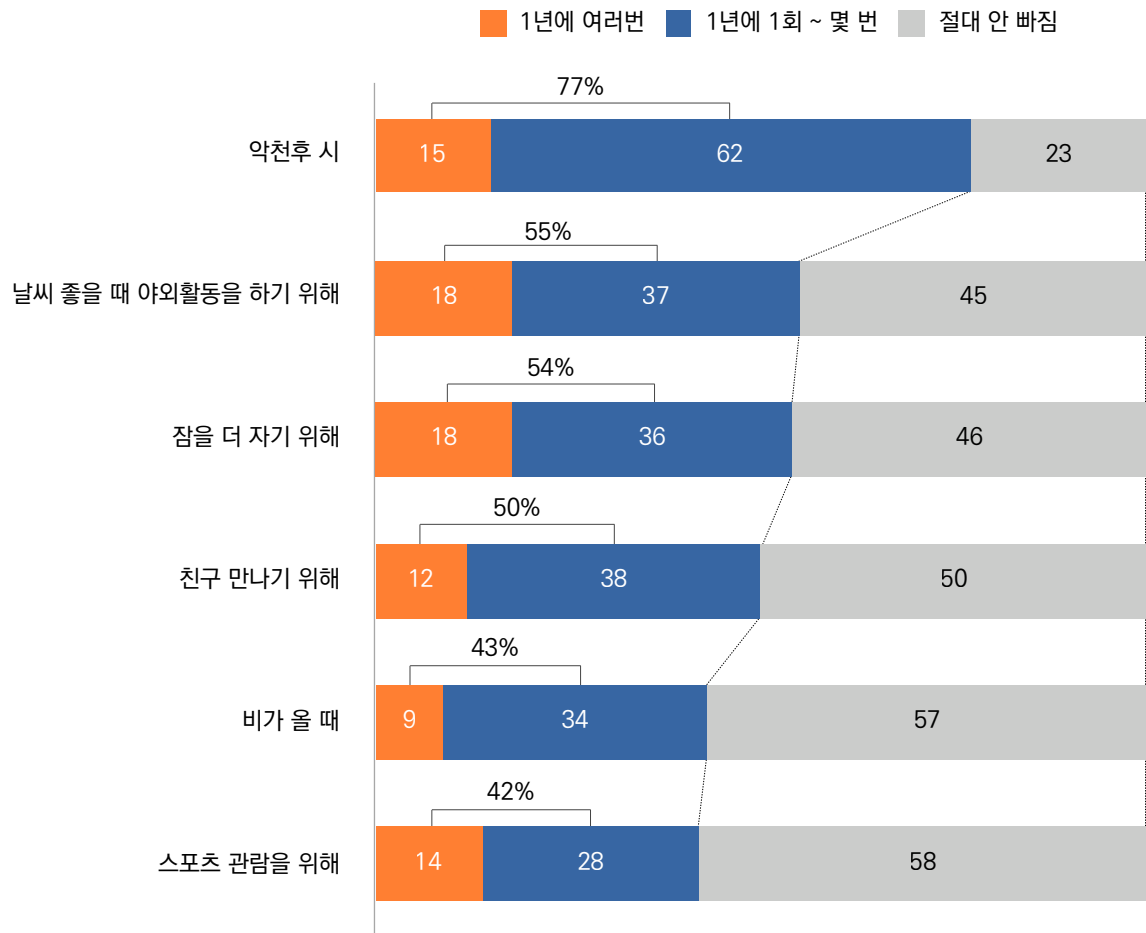




미국 개신교인, 교회 예배 빠지는 여러 요인 중, '악천후' 요인이 가장 커!

- ▶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미국 성인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예배에 빠지게 하는 6가지 상황을 제시하고, 각각의 상황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빠질 것 같은지를 물었다.
- ▶ 교인들이 예배에 빠지는 이유('1년에 1번 이상' 빠짐)로는 악천후, 즉 안 좋은 날씨(77%)가 가장 컸고, 이어서 '날씨가 좋을 때'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' 55%, '잠을 더 자기 위해' 54%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경우별 예배 빠질 의향 (%)



*자료 출처 : Lifeway research, 'Protestant Churchgoer Views On Skipping Worship Services', 2023.07.12. (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예배 참석하는 미국 개신교 신자 1,002명, 온라인 조사, 2022.09.19.-09.29.)